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보은군 **보 도 자 료**

■ 보은군 기획감사실 공보팀(☎540-3037)

■ 2021년 12월 31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군, 경로당에 양곡 대신 '귤' 전달

자료문의 주민복지과 노인팀장 원진주(☎540-3821)
담당자 박재규(☎540-3823)

보은군은 지역 내 경로당 288개소에 양곡을 대신해 귤 배부를 완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군은 경로당에 매년 양곡 20kg짜리 4~10포씩을 지원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이 장기 휴관하고 취식이 금지되면서 작년부터 양곡 지원을 중단했다.

이번 경로당에 전달한 귤은 보은농협과 제주농협 간 '보은쌀'과 '제주산 귤'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군은 귤 10kg짜리 총 4664박스를 구입해 경로당별 회원 수에 따라 8 ~ 30박스씩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귤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은군, 벼 재배 농가 소득직불금 지급

자료문의 농정과 친환경농산팀장 김은숙(☎540-3321)
담당자 김하란(☎540-3324)

보은군은 벼 재배 농가 3308호를 대상으로 8억 2600만원의 소득직불금을 지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벼 소득직불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외에 쌀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ha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군은 벼 소득직불금 외에도 벼 우량종자대 지원 등을 통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쌀값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된 벼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했다.

□ 보은군, 충북사과연구회 이명희 회장 2021년 농촌진흥사업 유공자 도지사 표창

- 사과 신방추형 및 평면형 수형 도입 등 농업발전에 기여

자료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획팀장 박희경(☎540-5731)
담당자 지한구(☎540-5732)

보은군은 충북사과연구회 이명희 회장이 지난달 30일 2021년 농촌진흥사업 유공자로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명희 회장은 보은군의 사과 재배기술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러 사과나무의 수형을 직접 식재해 수형별 장단점을 확인하고, 신방추형 수형에 대한 재배기술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사과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관내 많은 사과 농가에 보급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이명희 회장은 “이번 수상의 영광을 농업 발전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해 온 충북사과연구회 회원들께 돌리고 싶다” 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명희 회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은황토사과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충북사과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해 탁월한 리더십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재까지 충북의 사과 발전과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보은군, 장안면으로 썰매 타러 오세요. 얼음썰매장 인기 ‘짱’

자료문의 장안면 총무팀 황해봉(☎540-4092)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얼음썰매장이 지난달 30일 개장해 화재를 모으고 있다.

얼음썰매장이 열리자마자 동네 아이들이 추운 줄도 모르고 씽씽 썰매를 타며, 얼음판 위를 한발 한발 내딛는 어린이들 모습에 바라보는 모두가 함께 웃음을 지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목리 이동우님이 얼음썰매장을 만들고 손수 썰매를 만들어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썰매를 타고 있는 한 아이는 “썰매를 타보니까 너무 재미있다” 며 “매일 매일 날씨가 추워서 썰매를 탈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동우 님은 “얼음썰매장 개장으로 어린이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노는 모습을 보니 어릴적 동네 꼬마들과 옷이 젖는줄도 모르고 하루종일 썰매를 탔던 기억이 떠오른다” 며 “얼음썰매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 썰매를 타고 싶은 어린아이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최진성 장안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돼 있는 아이들이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겨울철 놀이를 통해 공감과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